이승미 기자의 여기는 칸 | 경쟁부문 초청된 '헤어질 결심' 주역 **탕웨이 & 박해일**

배우 탕웨이(43)와 박해일(45)의 오묘하고 신비한 조화가 해외 영화관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이 주연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쏟아지는 평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영화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24일(한국시간) 세계무대에 선보였다.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와 사망자의 아내가 그려내는 두 남녀의 내밀한 감성의 이야기이다. 박해일과 탕웨이는 서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흔들리는 모습을 밀도 있게 연기했다. 공식 상영 이튿날 칸의 한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이들의 얼굴에서는 영화에 대한 만족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출연 제안을 받은 첫 만남부터 촬영 등 모든 순간을 "박찬욱 감독과 함께해 정말 행복했다"는 두 사람은 "이 순간까지 완벽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박 감독님, 날 완성시켜 주셨다" "품위 있는 형사 캐릭터는 처음"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연 탕웨이(왼쪽)와 박해일이 25일(한국시간) 프랑스 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 앞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 ENM

▶▶▶탕웨이

박찬욱 감독의 오랜 팬이라는 탕웨이는 처음 출연 제안을 받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시나리오도 완성되지 않은 영화를 줄거리 설명만 듣고 선택했다. 그만큼 "박 감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완성된 영화 역시 그가 보기에 "완벽"했다.

"영화를 보고 감독께 '나를 완성시켜 주셨다'고 말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다. 영화를 보고 딱 느낌이 왔다. 배우 인생에서 처음 느낀 감정이다."

탕웨이는 극중 대사의 대부분을 한국어로 소화했다. "박 감독이 직접 녹음한 대사"를 듣고 또 들었다.

"백지 같은 한국어 실력에 처음으로 붓글씨를 써 내려간 이도 바로 박 감독이다. 대사 한 자 한 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음성만 따라 외우는 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든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는 물론 영어 대본을 번갈아 가며 보고 공부하듯 연습했다."

> 감독님이 녹음한 한국어 대사 듣고 또 들어
> 모든 텍스트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듯 연습
> 영화를 직접 보니 이미 상을 받은 느낌이다

덕분에 경쟁부문 공식 상영 이후 여우주연상에 대한 기대가 여러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지만, 정작 그는 담담했다. 박 감독과 시나리오를 쓴 정서경 작가의 말로 답을 대신했다.

"어제 정 작가가 '칸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상을 받기를 바랐는데, 영화를 보니 더 이상 수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상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그만큼 무거운 부담감을 훌훌 털어내듯 '헤어질 결심'과 남편 김태용 감독의 영화 '원더랜드' 촬영을 모두 마친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부모와 지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도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한다.

"중국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시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려 한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가족, 남편이 많이 보고 싶다. 제가 마음 편히 베이징에 머물 수 있는 것도 다 남편 덕이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박해일◀◀◀

극중 박해일이 연기한 장해준은 많은 영화가 그려낸 거칠고 폭력적인 형사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르다. "친절하고 품위 있으며 폭력을 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을 그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20년 넘게 연기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형사 연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억울한 용의자(살인의 추억)나 무능한 왕(남한산성) 같은 역할을 주로 했다. 이렇게 친절하고 매너 있는 공무원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 좀 더 담백하게 다가가고 싶었다."

몸으로 일하는 형사 캐릭터이지만 "빚어 놓은 듯 단백질 가득한 몸"을 만들지 않았던 것도 "(인물을)다르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신 날렵한 느낌을 드러내려 뛰고 또 뛰었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범인을 추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관절수술을 한 적이 있어 정말 걱정됐다. 잘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촬영 며칠 전부터 체육복을 입고 혼자 현장에 가서 계단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했다."

> 폭력적이지 않고 친절한 형사 놓치기 싫었다
> 날렵한 느낌을 드러내기위해 뛰고 또 뛰었죠
> 배우로서 박찬욱 감독님 작품의 출연은 영광

그렇게 힘을 보탠 현장에서 그는 박찬욱 감독이 '명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더욱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한다. 박 감독은 어떤 배우를 만나건 "배우의 기질과 매력과 장점 자신이 만든 세계 안으로 가장 잘 끌어들이는 연출자"라는 설명이다. "영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아는 게 정말 많은 분이다. 여러 분야에 조예가 깊고 넓다. 그 방대한 지식 속에서 항상 새롭고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사실 박해일은 박 감독에 앞서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남한산성'의 황동혁, '덕혜옹주'의 허진호, '행복한 나라'의 임상수 등 내로라하는 감독들과 작업해왔다. "배우로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창작자들이 저를 자신의 세계 안에서 활용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연기라는 밭을 갈며 일궈 왔다. 그렇게 만든 저라는 농작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건강하지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을 알아봐 주는 거라 생각해 늘 감사하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개그우먼 김신영이 '헤어질 결심'에 나온다고?

박해일의 후배 형사로 스크린 데뷔
스타 배우들 사이에서 존재감 발휘
박찬욱 감독 "팬심으로 캐스팅했죠"



김신영



박찬욱 감독

개그우먼 김신영이 배우로 데뷔했다. 첫 무대는 한국영화의 대표적 연출자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다.

김신영은 '헤어질 결심'에서 주인공 박해일의 후배 형사로 등장해 정극 연기를 한껏 펼쳤다. 선배 형사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극중 김신영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박정민, 유태오 등 스타급 배우들이 대거 특별출연한 영화에서 김신영은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 존재감으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전을 치렀다.

그의 출연 사실은 영화가 24일(한국시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공식 상영되기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박찬욱 감독이 '팬심'으로 그를 캐스팅했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끈다. 칸에서 만난 박 감독은 "김신영이 2004년 SBS 공개코미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인기 코너 '행님아'로 활약할 때부터 줄곧 좋아했다"고 털어놓았다. 나아가 방송을 통해 지켜봐 온 김신영의 "순발력, 표현 능력, 캐릭터 소화력"에 기대 "연기도 잘할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그를 캐스팅하겠다는 박 감독의 생각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스태프들도 이내 마음을 돌렸다는 후문이다.

박 감독은 "대학로 배우처럼 연기를 잘해줬다. 처음 온 영화 현장에 긴장했다고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연기의 핵심을 재빠르게 포착하며 뉘앙스를 잘 살려내 영화에 녹아들었다. 정말 뿌듯하다"며 김신영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칸 "OTT 비경쟁 상영 허용" vs 넷플릭스 "비경쟁 출품 안 해"

칸, 틱톡 단편 영화제 신설 이중적 태도
영화계 "OTT 영화 홀드백 기간 줄여야"

18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29일 폐막을 향해 후반부로 치달아가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21편의 경쟁부문 상영작을 비롯해 전 세계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만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축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칸에서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화는 찾아볼 수 없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강력한 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 아카데미상은 물론 베를린과 베니스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이력을 쌓아가는 작품이 늘고 있는 상황에 칸 국제영화제는 여전히 OTT에 영화에 빗장을 걸고 있다. 칸의 장벽은 왜 그토록 견고하고 높은 걸까. 이제 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은 배경이다.

●OTT에만 보수적인 칸?

칸 국제영화제는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노아 바움백 감독의 '더 마이어로위츠 이야기'를 경쟁부문에서 선보인 뒤 이후 OTT 영화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프랑스 영화산업의 강력한 주체인 프랑스극장협회가 "영화제 상영작은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 36개월 이후 다른 플랫폼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홀드백 기간을 명분으로 OTT 영화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칸은 대표주자 넷플릭스와 논의 끝에 OTT 영화를 비경쟁부문에서 상영키로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올해 영화를 출품하지 않았다. 칸을 제외한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성과를 내온 넷플릭스가 '비경쟁부문 한정 상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칸의 보수적 행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OTT 영화를 배제하면서도 올해 숏폼 플랫폼 틱톡과 손잡고 '틱톡 단편영화제'를 신설한 데 대한 비난도 거세다. 이에 극장 영화를 고집하는 태도 덕에 영화제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칸을 찾은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OTT 영화에 배타적인 칸의 행보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 영화에 관한 영화제의 자부심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출품작 없는 '큰손' 넷플릭스

다만 영화관계자들은 칸 국제영화제도 이제 변화의 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23일 넷플릭스와 프랑스국립영화영상센터(CNC)를 비롯한 주요 영화 단체들의 토론 자리가 이를 드러낸다. 이 자리에서 데미안 베넷 넷플릭스 프랑스 법무담당 국장은 "홀드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 홀드백 기간이 이렇게 긴 나라는 프랑스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견본시인 칸 필름마켓에서 넷플릭스 등 OTT의 입김은 더욱 거세졌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올해 칸 필름마켓에서 넷플릭스와 애플TV+가 '큰손'으로 떠올랐다"면서 "두 OTT가 엄청난 금액으로 영화를 사들이며 시장 분위기를 과열시켰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이 연출하고 에밀리 블론트가 주연한 영화 '파인 허슬러'를 5000만 달러(632억 원)에 사들였다고 데드라인이 전했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